

홈 > 뉴스 > 뉴스 > 지방자치

고성군, 환경농업연구 시험연구보고서 발간

현장 애로사항 해소

2017년 01월 22일 (일) 20:57:05

이대형 기자 ☎ 565631@hanmail.net

고성군이 2016년도 환경농업 연구 시험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역농업에서 당면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의 해소와 미래농업을 선점하기 위해 분야별 시험연구 과제를 선정, 그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이 네 번째이다.



지난해에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하

▲ 고성군이 2016년도 환경농업연구 시험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고성 농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연구팀이 9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91종 139대 시험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FTA가 한·칠레를 시작으로 한·중 협상까지 타결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농업경영비의 부담 해소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변하는 작물의 재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영농기술 최적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기능성버 품종의 성분분석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고급화 자료에 이용하고 도출된 연구 성과가 농업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 창닫기